

錄 取 書

녹 음 일 시	2014년 4월 16일 9시 31분 ~ 11시 52분
녹 음 장 소	해양경찰청 경비전화(2342)
대 화 자	본문 기재
녹 취 분 량	표지 外 57쪽

본 녹취록은 녹음CD의 내용과 일치함을 증명함.

2016년 4월 19일

속기법인 대한

(사업자등록번호 : 264-81-30602)

속기사 林鍾憲 (印)

(자격번호 : 06-G2-000008)

- ▶ 본 녹취록은 녹음일시, 장소 및 대화자, 지문의 설정은 의뢰인이 한 것이며, 녹음 청취의 미비 등으로 인한 명사나 고유명사의 표기에 오기가 있을 수도 있음.
- ▶ 이해력을 돕기 위하여 불필요한 어구 침삭이나 일부 사투리, 어순 정리는 속기사의 재량으로 정리하였음.
- ▶ '***' 표시는 청취불능 표시임.





◆ 녹음 순번 : #02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33분 16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김남진 / 본청 총무계

김남진 : 감사합니다. 상황실 경위 김남진입니다.

여자 1 : 김 주임님! 안 경사인데요. 오늘 근무이신 거죠?

김남진 : 응.

여자 1 : 이거 사인할 거 있는데 이거.

김남진 : 뭘 사인?

여자 1 : 행정사 면접서류 제출한 거.

김남진 : 응.

여자 1 : 이거 상황실 세 분... 두 분 했나?

김남진 : 3명, 4명.

여자 1 : 4명 이거 사인해야 되는데.

김남진 : 응. 대충해.

여자 1 : 안 돼요.

김남진 : 왜?

여자 1 : 안 돼요. 그렇게 하면 안 돼요.

김남진 : 응. 나중에, 나중에. 우리 지금 상황 벌어져가지고.

여자 1 : 아, 알았어요.

김남진 : 응.



◆ 녹음 순번 : #03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34분 07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김남진 / 안전행정부 상황실 신재필

김남진 : 감사합니다. 상황실 경위 김남진입니다.

남자 1 : 아, 예, 고생하십니다. 여기 안행부 상황실의 신재필 사무관입니다.

김남진 : 예, 예.

남자 1 : 지금 인터넷 뉴스에 여객선 조난 뭐 나오던데 어떤 내용이에요?

김남진 : 예. 전남 진도군 인천에서 제주 가는 여객선 세월호라고요.

남자 1 : 인천에서 제주.

김남진 : 예, 예. 이거 지금 침수 중이라고 지금 저희한테 보고가 돼서 저희가 지금 상황 파악 중에 있습니다.

남자 1 : 아~ 몇 명이나 탑승했어요?

김남진 : 지금 350명 이상 탔다고 지금 그러거든요.

남자 1 : 350명 이상?

김남진 : 예, 예.

남자 1 : 아직 정확한 보고서나 보고 같은 건 아직 뭐 작성하신 건 없죠?

김남진 : 예, 예.

남자 1 : 아... 그 보고서 작성되면 저희한테도 바로 좀 넣어주세요.

김남진 : 예, 예.

남자 1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04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40분 54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김남진 / 국정원

김남진 : 감사합니다. 상황실 경위 김남진입니다.

남자 1 : 예. 국정원입니다.

김남진 : 예, 예.

남자 1 : 그 좌초 선박, 선박 ** 원인만 알 수 있습니까?

김남진 : 원인도 알 수 없습니다. 지금 침수 중이라고만 돼 있습니다.

남자 1 : 그것만 신고가 들어온 거네요?

김남진 : 예, 예.

남자 1 : **

김남진 : 예, 예.

남자 1 : 어디서 어디 가는 배입니까?

김남진 : 인천 제주 가는 겁니다.

남자 1 : 인천 제주요?

김남진 : 예.



◆ 녹음 순번 : #05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41분 23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김남진 / 소방방재청 상황실

김남진 : 감사합니다. 상황실 경위 김남진입니다.

남자 1 : 예. 소방방재청 상황실입니다.

김남진 : 어디요?

남자 1 : 소방방재청 상황실입니다.

김남진 : 예, 예.

남자 1 : 예. 여객선 침몰 이거 맞는 건가요?

김남진 : 예. 지금 침수 중에 있습니다. 예.

남자 1 : 350명?

김남진 : 지금 인원 파악은 안 됐습니다.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.

남자 1 : 지금 우리 중대본이나 헬기랑 뭐 해서 필요한 거 없어요?

김남진 :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서 전파 중에 있거든요.

남자 1 : 예. 필요하면 우리한테 연락 조치 좀 해 주시고요. 상황전파 팩스 좀 하나 보내 주십시오.

김남진 : 예, 예.

남자 1 : 누구세요? (전화 끊김)





◆ 녹음 순번 : #06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42분 54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김남진 /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

김남진 : 감사합니다. 상황실 경위 김남진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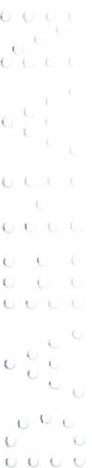
남자 1 : 중대본입니다.

김남진 : 예.

남자 1 : 지금 뼉 소리 나는 게 진도 해상에 여객선 조난,

김남진 : 예, 예.

남자 1 : 예, 알겠습니다.



- ◆ 녹음 순번 : #07
- 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43분 30초
- 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김남진 / 해양수산부 상황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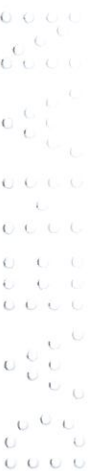
김남진 : 감사합니다. 상황실 경위 김남진입니다.

남자 1 : 예, 안녕하십니까? 해수부 상황실 박의성 주무관입니다.

김남진 : 예, 예.

남자 1 : 예. 여객선 인근 세력 중에 영상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.

김남진 : 예, 예.

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김남진 / 경찰청 위기관리센터

김남진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09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49분 04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김남진 / 123정장 김경일 / 본청 형사과장 순길태

김경일 : 예. 여보세요?

김남진 : 예, 정장님!

김경일 : 예.

김남진 : 여기 본청인데요. 지금 현재 상황을 빨리 보고 좀 해 주세요. 그리고,

김경일 : 현재 지금 도착했는데요. 선원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 헬기가 여기 ** 계류할 수
가 없네요. 여기 지금 상황이,

김남진 : 영상시스템 작동 안 됩니까?

김경일 : 구명벌도 투하한 것도 없고, 구명벌 투하한 거 없는데, 현재 여기 사람이 안 보
여가지고요. 헬기 쪽으로 문의 한번 해 볼랍니다. 아마 선박 안에 있는가 봅니
다.

김남진 : 아, 선원들 전혀 안 보여요?

김경일 : 예, 예. 지금 현재,

김남진 : 잠시만요, 잠시만요.

순길태 : 여보세요? 여보세요?

김경일 : 예. 여보세요?

순길태 : 예. 잘 들으세요. 본청 형사과장인데요.

김경일 : 예, 예.

순길태 : 지금 세월호 도착했죠?

김경일 : 예, 도착했습니다.



순길태 : 자, 그 배 상태 지금 어때요?

김경일 : 현재 지금 좌현으로 약 45도, 50도 정도 기울었습니다.

순길태 : 좌현 50도.

김경일 : 예. 그리고 50도 기울어졌고요. 지금 우리 헬기 2척이, 2대가 지금 제4구에서 지금 인원을 구조하고 있습니다.

순길태 : 사람들 보여요, 안 보여요?

김경일 : 사람들 하나도 안 보입니다, 지금.

순길태 : 사람들... 아니, 갑판 위에 사람들 한 명도 안 보여요?

김경일 : 예, 안 보입니다. **

순길태 : 갑판에 사람 보여요, 안 보여요?

김경일 : 현재 갑판은 안 보이고요. 사람이 보이는데 이게 단정으로 구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.

순길태 : 사람들 전부 바다에 뛰어내렸어요, 안 내렸어요?

김경일 : 바다에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.

순길태 : 바다에도 사람 안 보이고?

김경일 : 예, 예.

순길태 : 자, 구명동의 보여요, 안 보여요?

김경일 : 구명동의는 그대로 다 있습니다. 하나도 투하 안 했습니다.

순길태 : 구명정은?

김경일 : 예?

순길태 : 구명정 같은 거 있어, 없어?

김경일 :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.

순길태 : 구명정, 구명정.



김경일 : 구명정, 구명벌은 그대로, 하나도 투하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.

순길태 : 그러면 사람이 배에도 안 보이고 바다에도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?

김경일 : 예, 예.

순길태 : 어?

김경일 : 예.

순길태 : 그러면 사람 전혀 안 보이고 배는 지금 한,

김경일 : 배는 좌현으로 50도 기울었고요.

순길태 : 침몰할 것 같아요, 안 할 것 같아요?

김경일 : 현재 봐서는 지금 계속 더 기울어지고 있습니다.

순길태 : 계속 기울어지고 있어?

김경일 : 예, 예.

순길태 : 아, 잠깐만. 전화 끊지 마세요.

김경일 : 저희들이 **

순길태 : 자, 그다음에... 여보세요?

김경일 : 예.

순길태 : 자, 정장님!

김경일 : 예.

순길태 : TRS 돼요, 안 돼요?

김경일 : 다시 한 번요.

순길태 : TRS 돼, 안 돼?

김경일 : TRS 되고 있습니다.

순길태 : 자, 지금부터 전화기 다 끊고 모든 상황은 TRS로 다 실시간 보고하세요.

김경일 : 예, 알겠습니다.





순길태 : TRS 52번.

김경일 : 예, 알겠습니다.

순길태 : 우리 정장님 해 갖고 TRS로 현 시간 무조건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하세요.

김경일 : 예, 알겠습니다.

순길태 : 예,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10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55분 30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/ 해양수산부 상황실 / 본청 상황실 김남진

남자 1 : 예. 전화 대신 받았습니다. 해군 강 소령입니다.

남자 2 : 예, 안녕하십니까? 해수부 상황실 박의성 주무관입니다.

남자 1 : 예, 수고하십니다.

남자 2 : 해수부에서 수색구조에 필요한 항공기 지원이 필요하면요. 연락을 달라고 연락
이 와서 전해드립니다.

남자 1 : 아,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. 바꿔드릴게요, 담당자요.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.

남자 2 : 예.

김남진 : 여보세요?

남자 2 : 예, 안녕하십니까? 해수부 상황실 박의성 주무관입니다.

김남진 : 예, 예.

남자 2 : 예. 국토부 항공부 쪽에서 항공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시면 연락 달라고 연락처
가 있어가지고 전화 드렸습니다.

김남진 : 예, 예.

남자 2 : 044에.

김남진 : 잠깐만요. 044에.

남자 2 : 201-4246. 운항정책과 김민수 사무관입니다.

김남진 : 운항정책과 김민수,

남자 2 : 사무관.

김남진 : 사무관. 국토부죠?



남자 2 : 예, 예, 그렇습니다.

김남진 : 예.

남자 2 : 전산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.

김남진 : 예, 예.

남자 2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11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00분 30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김남진 / 남자 1

김남진 : 감사합니다. 상황실 김남진입니다.

남자 1 : 아, 예. **

김남진 : 예?

남자 1 : 예. **

김남진 : 예.

남자 1 : 예. **

김남진 : 예. 지금 저희 파악 중에 있거든요.

남자 1 : 예.

김남진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12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00분 47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김남진 / 국토부 운항정책과 김민수

김민수 : 감사합니다. 운항정책과 김민수입니다.

김남진 : 예. 고생하십니다. 여기 해양경찰청 상황실인데요.

김민수 : 예, 안녕하십니까?

김남진 : 예, 예. 아까 헬기 지원 가능하다고 들어서 전화 드렸습니다.

김민수 : 헬기가 지원이 가능하다고요?

김남진 : 예, 예.

김민수 : 아, 잠시만요.

김남진 : 예, 예.

김민수 : 아, 저희가 그 전화 드린 게요. 당장 헬기 지원이 저희가 된다는 게 아니고요.
혹시 저희 항공 쪽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계시면 운용지침 같은 거 있잖아
요.

김남진 : 어떤 거요?

김민수 : 운용지침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. 헬기 운용할 때. 그런 것들,

김남진 : 헬기 직접 지원이 아니고요?

김민수 : 아, 예, 그렇진 않죠. 저희가 헬기 갖고 있는 건 저희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
말씀 **

김남진 : 예, 알았습니다.

김민수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13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02분 33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김남진 /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오주영 / 소방방재청 소방상황실 정진균

오주영 : 여보세요? 재난상황실 오주영입니다.

김남진 : 예. 고생하십니다. 여기 해양청 상황실인데요.

오주영 : 예.

김남진 : 예, 예. 헬기 지원 가능한가요?

오주영 : 헬기 지원이요?

김남진 : 예, 예. 아까 상황실에서 전화가 왔기에 저희가 지금 전화 드리는데.

오주영 : 지금 바로 5119 소방상황실로 연결시켜 드릴게요. 우리 옆에 있거든요. 거기다 헬기 그쪽에다 한번 요청을 해 보시죠. 잠시만 기다리십시오.

김남진 : 예, 예.

오주영 :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?

김남진 : 예. 김남진 경위입니다. 전화 받으신 분은요?

오주영 : 예. 오주영입니다. 잠시만 기다리십시오.

김남진 : 오주영?

오주영 : 오주영.

김남진 : 오주영.

남자 1 : 예. 잠시만 기다리십시오.

정진균 : 예. 감사합니다. 소방상황실 정진균입니다.

김남진 : 예. 고생하십니다. 여기 해경청 상황실인데요.

정진균 : 예, 예.





김남진 : 예, 예. 우리 진도 침몰 선박 관련해서 헬기 지원 가능하다고 아까 전화가 왔기에 제가 전화 드립니다.

정진균 : 예.

김남진 : 예. 지금,

정진균 : 여기가 지금 전남에 헬기 1대는 벌써 출발했구요.

김남진 : 전남 헬기 어떤 겁니까?

정진균 : 전남 헬기요?

김남진 : 예.

정진균 : 헬기 기종요?

김남진 : 예, 예.

정진균 : 아, 헬기 기종은 확인을 안 했네요. **

김남진 : ETA 몇 시 정도 됩니까?

정진균 : 아까 전남 헬기는 09시 28분,

김남진 : 28분?

정진균 : 예. 출발, 09시 29분 정도에, 28분요.

김남진 : 예. 출항.

정진균 : ** 했고, 그다음에 지금 저희 쪽에서 전북, 경북, 경남... 아, 광주. 광주 헬기는 출동 지시를 했구요.

김남진 : 헬기 출동 지시.

정진균 : 9시 34분에.

김남진 : 출동 지시.

정진균 : 예. 그다음에 전남에 추가로 1대 더 출동 지시했고,

김남진 : 전남.



정진균 : 예. 전남이 2대인데 전남 추가로 34분에 출동 지시 시켰고요.

김남진 : 34분에 또 다시.

정진균 : 예. 중앙119구조본부 헬기 3대.

김남진 : 중앙구조본부,

정진균 : 119구조본부 헬기.

김남진 : 119 헬기 3대.

정진균 : 3대.

김남진 : 예.

정진균 : 예. 그다음에 9시 45분에 전북하고 경남 쪽도 출동지시 다시 했습니다.

김남진 : 예, 예.

정진균 : 예. 그다음에 지금 그 후에 다시 부산하고 경북 쪽도 지금 출동지시를 해 났고요.

김남진 : 예, 예. 지금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?

정진균 : 예. 정진균입니다.

김남진 : 정진,

정진균 : 균.

김남진 : 균. 직접 통화하려면 어떻게 됩니까, 여기?

정진균 : 여기 02-2100-4119나 5119로 그냥 전화하시면 돼요.

김남진 : 4119 또는 5119요.

정진균 : 예.

김남진 : 예, 예.

정진균 : 현장 YTN에 나온 거 그대로입니까, 지금?

김남진 : 예. 지금 현재 그거 완전히 침몰은 안 됐고요. 지금 침수 중입니다.



정진균 : 침수 중?

김남진 : 예, 예.

정진균 : 예. 보니까 학생들 저기 다,

김남진 : 구명조끼 착용하라고,

정진균 : 착용하고 있다 하고. 아니, 해경 선박은 그쪽에 도착한 거잖아요.

김남진 : 예, 돼 있습니다. 1척 지금 도착했습니다. 각 상선들도 다 준비시키고 있습니다,
지금.

정진균 : 아,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그쪽 인원을 해경에다가 옮기고 한 거는 나옵니까,
지금?

김남진 : 아, 지금 일단 계속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. 지금 어떻게 될지 상황이, 아직 지금
다 배에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떠들 수는 없습니다.

정진균 : 아, 바깥으로 지금 해경 쪽으로 옮긴 인원은 파악이 안 되고요?

김남진 : 예, 예.

정진균 : 아, 그러면 저희도 나중에 한번 전화 드리겠습니다.

김남진 : 예, 예.

정진균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14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08분 59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김남진 / 안전행정부 상황실

김남진 : 감사합니다. 상황실 경위 김남진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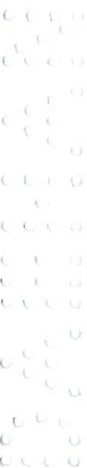
남자 1 : 예. 안행부 상황실인데 보고서 좀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십시오.

김남진 : 아까 들어갔을 건데요, 하나.

남자 1 : 아니, 아직 하나도 안 들어왔던데.

김남진 : 안행부 들어갔습니다, 아까. 접수 보십시오. 9시 33분에 보냈습니다.

남자 1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15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09분 16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김남진 / 소방방재청 소방상황실 정진균

정진균 : 예.

김남진 : 여보세요?

정진균 : 예.

김남진 : 예. 해경청 상황실입니다.

정진균 : 아, 예, 예.

김남진 : 예. 정진균 주임님 좀 부탁드립니다.

정진균 : 아이, 통화를 계속하니까 통화가 어렵던데. 말씀하세요.

김남진 : 아, 예. 헬기 지원 최대한 좀 해 주시고요. 최대한 헬기 지원 가능한 게 몇 대나 되는지 그것 좀,

정진균 : 지금 현재 저희가 8대가 일단 뚝어요.

김남진 : 8대, 8대? 예.

정진균 : 8대는 중구본이라고 서울에서 3대가 있어요. 3대가 뜨고 전남 2대하고,

김남진 : 전남 2대, 전북광주 헬기 2대.

정진균 : 예. 광주, 전북, 경남까지 해서 현재 8대가 뚝고요. 그다음에 부산하고 여기는 우리도 출동을 지시한 상황인데 일단은 8대는 지금 뚝습니다.

김남진 : 예, 예. 바로 좀 하여튼 많이, 최대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.

정진균 : 예. 지원하는데, 어차피 그쪽에 누구... 저희가 지원기관 아십니까? 그래서 헬기에 다 얘기를 했어요. 그쪽에서 지시를 받고, 동원 되도 그쪽의 지휘를 받고 구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 났습니다.



김남진 : 예, 알았습니다.

정진균 : 그 조치를 그쪽에 좀 해 주십시오, 그렇게.

김남진 : 예, 예.

정진균 : 예.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뭐 나온 게 있나요, 지금?

김남진 : 아니, 우리 지금 배에서 이적작업 하고 있습니다. 이송, 편승하고 있습니다. 이송 하고 있습니다.

정진균 : 정확한 위치는 어떻게 되죠?

김남진 : 지금 전남 조도면,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1.8해리.

정진균 : 아, 병풍동?

김남진 : 병풍도 북방 1.8해리입니다.

정진균 : 1.8해리?

김남진 : 예, 예.

정진균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16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13분 13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김남진 / 외국인

김남진 : 감사합니다. 상황실 경위 김남진입니다.

남자 1 : (이하 영어 대화)





◆ 녹음 순번 : #17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19분 07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김남진 / 안전행정부 상황실

김남진 : 감사합니다. 상황실 경위 김남진입니다.

남자 1 : 아, 예, 통화 됐네요. 안행부 상황실인데요.

김남진 : 예, 예.

남자 1 : 예. 뭐 하나 좀, 보고서 하나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 들어와가지고, 그 상황보고서 있잖아요.

김남진 : 그거 들어갔는데, 우리 지금 수신이 돼 있는데요.

남자 1 : 그러면 2100-4094, 4095 2개가 있거든요. 한번만 다시 보내주실래요?

김남진 : 잠깐만요.

남자 1 : 예. 2100-4094, 4095.

김남진 : 4094.

남자 1 : 4095.

김남진 : 4009.

남자 1 : 그러니까 2100-4094.

김남진 : 예. 4009, 2개.

남자 1 : 4094라니까요, 그냥.

김남진 : 3094, 4094 하나.

남자 1 : 2100-4094.

김남진 : 예, 예.

남자 1 : 4094. 그쪽 그거 하나 넣어주세요.



김남진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18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20분 13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김남진 / 치안정책관

김남진 : 감사합니다. 상황실 경위 김남진입니다.

남자 1 : 예. 고생하십니다. 치안정책관인데요.

김남진 : 예, 예.

남자 1 : 청장님 지금 현장으로 가신다 그러고.

김남진 : 예.

남자 1 : 잠깐만요.

여보세요?

김남진 : 예.

남자 1 : 소방방재청하고 산림청,

김남진 : 예. 소방방재청에 헬기 지원 다 해가지고 8대 지금 이륙했고요.

남자 1 : 오케이, 오케이.

김남진 : 예, 예. 그다음에 국토부도 또 통화했고 그다음에 산림청은 얘기 안 됐는데.

남자 1 : 아니야. 행안부 차관이 그쪽에다 지시를 했더니까,

김남진 : 아, 각 인근 도서지역 어선 총 출동해가지고요. 다 하고 있습니다.

남자 1 : 소방정도, 함정도 마찬가지로요.

김남진 : 예, 예.

남자 1 : 하시고, 지금 목포에 누구 연락,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사람이 연락 가능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?

김남진 : 지금 목포 123정 정장인데요. 지금 전화 안 받고 TRS만 들어와 있습니다. **



남자 1 : TRS 지금 계속 오픈이 돼 있어요, 지금?

김남진 : 예. 52번입니다.

남자 1 : 52번?

김남진 : 예.

남자 1 : 그리고 지금 구조현황 같은 거 좀 나와 있나요?

김남진 : 지금 현재 50여 명 구조한 걸로 대충 대략... 예.

남자 1 : 여기는 120명 막 이렇게 나오네요.

김남진 : 예.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.

남자 1 : 그걸 기자들이 먼저 아는 모양이네.

김남진 : 예.

남자 1 : 그다음에 저기 뭐냐, 침수, 침몰 이런 거는 우리는 어떻게 뭐 좀 진행이 되고 있
나요?

김남진 : 지금 정확히 60도 기울어가지고 좌현 완전히 침수된 걸로 돼 있습니다.

남자 1 : 아, 그러네.

김남진 : 예, 예.

남자 1 : 수심이 얕다면서요?

김남진 : 수심이 43m 지금 나옵니다.

남자 1 : 아, 깊은데?

김남진 : 예, 예.

남자 1 : 암초예요?

김남진 : 암초가 아니고 여기서 좀 항해를 한 것 같습니다.

남자 1 : 아, 암초가 아니고 항해를 했네.

김남진 : 예.



남자 1 : 오케이, 알았어요.

김남진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19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23분 01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김남진 / 위기관리실

김남진 : 감사합니다. 상황실 경위 김남진입니다.

남자 1 : 예. 위기관리실 **입니다.

김남진 : 예.

남자 1 : 예. 거기 영상 나오는 건 없나요?

김남진 : 지금 아직 영상 없습니다, 지금.

남자 1 : **

김남진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20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33분 20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김남진

김남진 : 감사합니다. 상황실 경위 김남진입니다. (전화 끊김)





◆ 녹음 순번 : #21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35분 07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김남진 / 외국인

김남진 : 감사합니다. 상황실 경위 김남진입니다.

남자 1 : (이하 영어 대화)





◆ 녹음 순번 : #22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35분 21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김남진 / 외국인

김남진 : 감사합니다.

남자 1 : (이하 영어 대화)





◆ 녹음 순번 : #23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40분 27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김남진 / 해양수산부 상황실

김남진 : 감사합니다. 상황실 경위 김남진입니다.

남자 1 : 예. 바쁘신데 죄송합니다. 해수부 상황실인데요.

김남진 : 예.

남자 1 : 영상 연결 안 되나요?

김남진 : 지금 계속 영상 연결 안 되네요, 저희도 지금.

남자 1 : 아, 그래요?

김남진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24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46분 39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김남진 / 해양수산부 상황실

김남진 : 전화 대신 받았습니다. 김남진입니다.

남자 1 : 여기 해양수산부 상황실인데요.

김남진 : 예.

남자 1 : 몇 명 구조됐는지 상황 들어온 거 있습니까?

김남진 : 아, 저희 지금 파악하고 있으니까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.





◆ 녹음 순번 : #25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46분 55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김남진 / 남자 1

남자 1 : 감사합니다. **

김남진 : 예. 고생합니다. 김남진 주임인데요.

남자 1 : 예, 예.

김남진 : 수신자 변경 좀 가능토록 해 주세요.

남자 1 : 예, 예, 알겠습니다.

김남진 : 예.



◆ 녹음 순번 : #26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49분 37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김남진 / 31사단

김남진 : 감사합니다. 상황실 경위 김남진입니다.

남자 1 : 예. 고생 많으십니다. 31사단에 근무하는 김진영 대위입니다.

김남진 : 예.

남자 1 : 지금 경찰청에도 상황실이 개소가 되어 있습니까?

김남진 : 경찰청이요?

남자 1 : 예, 예.

김남진 : 경찰청 아니라 해양경찰청입니다, 여기는.

남자 1 : 예. 해양 지금 상황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연락관을 파견하려고 하는데 가면 그 쪽으로 가도 되는지 확인차 연락 드렸습니다.

김남진 : 이쪽에도 우리 군 파견자 있습니다, 해군에서 나온 분.

남자 1 : 아, 저희 육군입니다. 육군에서도 지금 지원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차를 타고 지금,

김남진 :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... 잠깐만요.

나중에 통화한답니다. 여보세요? 해경 연락관이 통화한답니다.

남자 1 : 예.



◆ 녹음 순번 : #27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51분 43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김남진 / 남자 1

김남진 : 감사합니다. 상황실 경위 김남진입니다.

남자 1 : **

김남진 : 어디요?

남자 1 : **

김남진 : 예, 예.

남자 1 : 그 상태가 어떤가요?

김남진 : 지금 완전히 침수된 상태입니다.

남자 1 : 완전히 침수요?

김남진 : 침몰됐어요. 예, 예.

남자 1 : 아, 침몰이 됐어요?

김남진 : 예, 예.

남자 1 : 아... 그러면 사람들은 다 나왔나요?

김남진 : 지금 그거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. 계속 지금 바깥에서 구하고 있기 때문
예, 구조하고 있기 때문에,

남자 1 : 완전히 가라앉았다는 말이죠?

김남진 : 지금 선수만 떠 있는 상태입니다.

남자 1 : 아, 선수? 선수면 배 앞머리인가요?

김남진 : 예, 앞머리요. 예.

남자 1 : 아, 알겠습니다.

김남진 : 예.



◆ 녹음 순번 : #28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52분 26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김남진 / 본청 대변인실 이학범

김남진 : 감사합니다. 상황실 경위 김남진입니다.

이학범 : 예. 수고하십니다. 대변인실 이학범 경사입니다.

김남진 : 예.

이학범 : 거기 지금 여객선 승선인원 최종적으로 몇 명으로 이렇게 하면 될까요? 인천하고 목포가 틀려서.

김남진 : 477명.

이학범 : 477명으로?

김남진 : 예, 선원 26명.

이학범 : 선원이 26명이요?

김남진 : 예. 447, 447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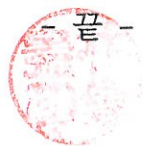
이학범 : 451명?

김남진 : 447명이 승객이고 그다음에 4명이... 일단 477이 맞아요.

이학범 : 그러면 477, 총 477이고, 그러면 승객이 451명으로 하면 되고?

김남진 : 예, 예.

이학범 : 알겠습니다. 수고하십시오.



◆ 녹음 순번 : #29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53분 56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김남진 / 동해서 상황실장

남자 1 : 예. 상황실장입니다.

김남진 : 예. 고생하십니다. 본청 김남진 주임입니다.

남자 1 : 예.

김남진 : 저기 그 구조현장에 배에 올라갔던 구조대원이요.

남자 1 : 예.

김남진 : 구조대원 한 사람 빨리 차장님께 직접 전화 좀...

남자 1 : 아, 여기 동해청인데.

김남진 : 예. 바로 좀 통화 좀,

남자 1 : 저희 동해청에 구조에 투입 못 했는데.

김남진 : 지금 사진에 보면 우리 직원이 올라가 있거든요, 헬기에 보면.

남자 1 : 아, 저희 지금 동해청에는 지금 현장에,

김남진 :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

남자 1 : 예.

- 끝 -

◆ 녹음 순번 : #30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54분 37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김남진 / 목포서 상황실장

남자 1 : 감사합니다. 상황실장입니다.

김남진 : 예. 여기 본청입니다.

남자 1 : 예. 말씀하십시오.

김남진 : 예. 지금 사진에 보면 우리 함정에, 세월호 선박에 올라간 우리 직원 있죠?

남자 1 : 예, 예.

김남진 : 직원 중에 한 사람 선임 빨리 우리 차장님께 직접 전화통화 좀 해 달라고 하십시오.

남자 1 : 차장님한테요?

김남진 : 예, 차장님한테 지금 즉시.

남자 1 : 어느 분 말씀하십니까?

김남진 : 지금 함정에 올라갔던 분 아무나 상관없습니다. 구조대...

남자 1 : 예, 알겠습니다.

김남진 : 예. 지금 바로 좀 부탁드립니다.

남자 1 : 차장님이요?

김남진 : 예, 차장님께요.

남자 1 : 예.

김남진 : 예, 예.



◆ 녹음 순번 : #31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56분 56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김남진 / 목포서 상황실장

남자 1 : 감사합니다. 상황실장입니다.

김남진 : 예. 실장님, 지금 통화 안 되는가요, 현재 현장 직원?

남자 1 : 지금 연락을 해 왔습니다.

김남진 : 누구니까?

남자 1 : 지금 연락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.

김남진 : 차장님 계속 기다리시는데 지금.

남자 1 : 예.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.

김남진 : 예. 바로 좀... 장관님 오셔가지고.

남자 1 : 예, 예.

김남진 : 예,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32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00분 50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김남진 / 안전행정부 상황실

김남진 : 감사합니다. 상황실 경위 김남진입니다.

남자 1 : 아, 예, 예. 안행부 상황실인데요.

김남진 : 예.

남자 1 : 지금 구조자들 명단 이런 거,

김남진 : 예, 그건 없습니다, 지금요.

남자 1 : 아, 그런 거 없어요?

김남진 : 예, 예.

남자 1 : 예. 그다음에 수색상황은 지금 뭐 좀 들어왔죠?

김남진 : 예. 현재 100여 명 지금 구조한 걸로 돼 있습니다.

남자 1 : 아, 100여 명?

김남진 : 예.

남자 1 : 그런 상황을 좀 하나만 안행부 팩스로 좀 넣어주세요.

김남진 : 예, 예.

남자 1 : 예,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33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02분 03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김남진 / 안전행정부 상황실

김남진 : 감사합니다. 상황실 경위 김남진입니다.

남자 1 : 아, 예. 안행부 상황실인데요.

김남진 : 예.

남자 1 : 중앙구조본부 구성됐죠? 해경청 안에.

김남진 : 예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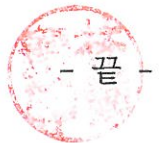
남자 1 : 거기 전화번호 어떻게 되죠?

김남진 : 잠깐만요. 3440입니다.

남자 1 : 3440.

김남진 : 예, 예.

남자 1 : 감사합니다.



◆ 녹음 순번 : #34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08분 35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김남진 / 해양수산부 상황실

김남진 : 감사합니다. 상황실 경위 김남진입니다.

남자 1 : 예. 죄송한데 해수부 상황실인데요. 현재 구조상황 좀 알 수 있을까요?

김남진 : 100여 명 구조한 걸로 돼 있습니다, 지금.

남자 1 : 예?

김남진 : 100여 명 정도,

남자 1 : 100여 명 정도... 정확히는 인원이 확인 안 되고요?

김남진 : 예. 지금 카운트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막 중복되는 게 있고 그래가지고.

남자 1 : 아~ 집계가 그러면 아직도 지금 안 된 거네요?

김남진 : 예, 예.

남자 1 : 알았습니다.

김남진 : 예, 예.



◆ 녹음 순번 : #35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21분 18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김남진 / 안전행정부 상황실

김남진 : 감사합니다. 상황실 경위 김남진입니다.

남자 1 : 아, 예. 수고하십니다. 여기는 안행부 상황실 백창현입니다.

김남진 : 예, 예.

남자 1 : 지금 구조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요?

김남진 : 구조가 지금,

남자 1 : 지금 YTN에서는,

김남진 : 아, 그거 오보입니다, 오보, 오보. 그거 아마 단원고 측에서, 단원고등학교 그쪽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. 우리는 아직 그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, 지금. 아까 말씀드린 100여 명밖에 안 됩니다, 지금.

남자 1 : 예? 지금 현재 100여 명밖에 구조를 못 했다고요?

김남진 : 예, 예.

남자 1 : 지금 배가 침몰돼 있는 상태 아십니까?

김남진 : 예, 맞습니다.

남자 1 : 그럼 배 안에 사람하고 같이 침몰이 됐다는 얘기인가요?

김남진 : 예,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, 지금.

남자 1 : 333명 지금 여기 한 것은 오보라는 얘긴가요, 그러면?

김남진 : 예, 오보입니다, 그건.

남자 1 : 아, 이게 심각한데요, 그러면.

김남진 : 예, 예.

남자 1 : 아~ 그래요?

김남진 : 예.

남자 1 : 예, 알겠습니다.

김남진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36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25분 19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김남진 / 일반인

김남진 : 감사합니다. 김남진입니다.

여자 1 : 지금 속보 나온 세월호 승객 가족인데, 승무원 가족인데요.

김남진 : 예.

여자 1 : 지금 현장 확인할 수 있을까요?

김남진 : 지금 저희 안 됩니다. 지금 수색하고 때문예요. 죄송합니다.

여자 1 :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?

김남진 : 그게 저희들 지금 계속 수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쯤인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지금 전화가 엄청 많이 오고 있거든요.

여자 1 : 예.

김남진 : 예.



◆ 녹음 순번 : #37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26분 27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김남진 / 안전행정부 상황실

김남진 : 감사합니다. 상황실 경위 김남진입니다.

남자 1 : 예. 안행부 상황실이에요.

김남진 : 예.

남자 1 : 지금 뭐 YTN에 보면,

김남진 : 그거 오보입니다, 오보.

남자 1 : 오보고요?

김남진 : 예, 예.

남자 1 : 그다음에 몇 명 지금 구조가 됐는지 그거 파악이 좀 나오나요?

김남진 : 지금 저희가 한 140여 명쯤 되는 것 같습니다, 지금 현재까지.

남자 1 : 140?

김남진 : 예. 그런데... 예, 예.

남자 1 : 예. 그러면 그거 추가상황이 있으면,

김남진 : 예, 바로바로. 예, 예.

남자 1 : 예.



◆ 녹음 순번 : #38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28분 16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김남진 / 일반인

김남진 : 감사합니다. 상황실 김남진입니다.

여자 1 : 예. 저 그냥 TV 보고 전화 드렸던 사람인데요.

김남진 : 예, 예.

여자 1 : 아니, 지금 잠수가 돼갖고 3분의 2가 가라앉아 있는데 어떻게 헬기 1대 갖다 구조를 하고 있어요, 지금?

김남진 : 헬기 1대 아닙니다. 헬기 1대 아닙니다.

여자 1 : 그러면 해경 전체가 100대가 가든지 200대가 가든지,

김남진 : 예. 총 동원하고 해경뿐이 아니고 해군 다 동원했습니다. 소방 다 동원했거든요.

여자 1 : 지금 막 숨이 차갖고 죽겠어요. 나 자식 키우는 사람이...

김남진 : 예, 예.

여자 1 : 예. 수고하세요.

김남진 : 예.



◆ 녹음 순번 : #39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30분 38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김남진 / TBS 기자

김남진 : 감사합니다. 상황실 경위 김남진입니다. 여보세요?

여자 1 : **

김남진 : 여보세요? 지금 잘 안 들립니다.

여자 1 : 예. TBS인데요.

김남진 : 예. TBS?

여자 1 : 예.

김남진 : 저한테 하지 말고요. 우리 대변인실 좀 통해 주십시오. 죄송합니다.

여자 1 : 예, 알겠습니다.

김남진 : 예.

- 끝 -



◆ 녹음 순번 : #40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31분 07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김남진 / 주한미군대사관

김남진 : 감사합니다. 상황실 김남진입니다.

여자 1 : 안녕하세요. 여기 주한미군대사관인데요.

김남진 : 예.

여자 1 : 혹시 **

김남진 : 아니, 아직 안 됐습니다.

여자 1 : 저희가 그러면 ** 확인하고 싶으면 상황실로 전화 드리면 돼요?

김남진 : 예. 우리 쪽하고 목포인데요. 서해청으로 하시면 됩니다.

여자 1 : 어디요?

김남진 :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.

여자 1 : 서,

김남진 : 서해지방해양경찰청.

여자 1 : 서해지방해양경찰청.

김남진 : 예.

여자 1 : 전화번호 알 수 있을까요?

김남진 : 저희가 지금 전화번호가 없는데. 죄송합니다. 지금 상황 때문에 122에 찾아보시겠어요?

여자 1 : 아, 예, 알겠습니다.

김남진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41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36분 45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김남진 / 경찰청 위기관리실

김남진 : 감사합니다. 상황실 경위 김남진입니다.

남자 1 : 예. 경찰청 위기관리실 **입니다.

김남진 : 예.

남자 1 : 현재 구조인원이 몇 명 정도로,

김남진 : 지금 162명 정도 나옵니다.

남자 1 : 예?

김남진 : 160명 정도 됩니다.

남자 1 : 160명이요?

김남진 : 예.

남자 1 : 아, 보도에서,

김남진 : 아, 그거 오보입니다, 전부 다. 아마 단원고 측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.

남자 1 : 160명 정도 되는 거죠?

김남진 : 예, 예.

남자 1 : 알겠습니다.

김남진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42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42분 51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김남진 / 안전행정부 상황실

김남진 : 감사합니다. 상황실 경위 김남진입니다.

남자 1 : 예. 저 안행부 상황실인데요.

김남진 : 예.

남자 1 : 예. 추가상황 좀 팩스로 좀 보내주십시오, 이쪽에.

김남진 : 어떤 거... 현재 지금 계속 파악하고 있고,

남자 1 : 여보세요?

김남진 : 예, 예.

남자 1 : 예, 예. 지금 우리가 2보 받았는데, 그때 10시 거로 받아가지고 자꾸 물어보네요.

김남진 : 예, 예.

남자 1 : 예.



◆ 녹음 순번 : #43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52분 35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김남진 / 본청 상황실 / 본청 대변인실 이학범

남자 1 : 예. 전화 대신 받았습니다. 강 소령입니다.

이학범 : 예. 수고하십니다. 대변인실의 이학범 경사입니다.

남자 1 : 어디라고 하셨죠?

이학범 : 대변인실입니다, 대변인실.

남자 1 : 예, 예.

이학범 : 구조인원이 몇 명이죠?

남자 1 : 지금... 잠시만 기다리십시오.

김남진 : 여보세요?

이학범 : 예. 안녕하십니까? 대변인실 이학범 경사입니다.

김남진 : 어.

이학범 : 구조인원 좀 알 수 있습니까?

김남진 : 아까 구조인원은 서해청장이 발표한 내용 그대로 하라고, 일단 아직까지는.

이학범 : 아, 그렇습니까?

김남진 : 응. 아까 서해청장이 161명으로 발표했거든.

이학범 : 161명이요?

김남진 : 응. 아까 서해청장이 그렇게 발표하더라고.

이학범 : 아, 목포에서는 111명이라고 그러던데.

김남진 : 160.

이학범 : 아~ 그렇습니까?

김남진 : 어.

이학범 : 예, 알겠습니다.

김남진 : 응. 여보세요?

이학범 : 예.

김남진 : 어. 왜?

이학범 : 아닙니다. 알겠습니다. 수고하십시오.

김남진 : 응.

